

광주 외국인 소비 '극과 극'

'통 큰' 유커들 백화점으로 이주여성 금남지하상가로

중국 관광객과 이주여성·근로자가 늘면서 광주지역 상권에도 외국인들의 '극과 극 소비'가 눈에 띄고 있다.

숨쉬기가 큰 유커는 백화점으로 몰리고, 이주 여성은 다소 가격이 싸고 물건이 다양한 동구 금남지하상가를 즐겨 찾는다. 또 이주근로자들은 일터와 숙소에서 가까운 광산구 월곡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월곡시장 일대에는 환전소가 들어선고 외국 상품만을 파는 매장이 문을 여는 등 새로운 외국인 만남의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1~9월 매출 전년비 3.4배 증가
금남지하상가 교통 편하고 중·저가 상품 입소문
광산 월곡시장 이주근로자 위한 외국상품매장 5곳

롯데백화점광주점은 1일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취항과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특수로 인해 중국인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민음악가인 정용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광주시 동구 일대를 둘러본 유커들이 인근의 롯데백화점광주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백화점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 매출(관광객이 쓰는 연권카드 매출 기준)이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1월~9월 매출 또한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뜸했던 6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배 이상 신장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는 유커 전문 여행사와 제휴를 시작한 올해 4월 이후부터 매일 800명~1000명가량의 중국인 관광객이 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 김과 홍삼세트를 비롯한 식품류 또는 화장품, 스카프 및 모자, 선글라스 등 패션잡화 상품군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외에도 일부는 전기밥솥 등과 같은 소형 가전제품도 구입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롯데백화점광주점은 중국어 매장 안내도와 직원들의 응대 매뉴얼 등을 만들었으며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지역 백화점 최초로 도입 하는 등 유커 잡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광주살이'에 어느 정도 적응된 이주여성들은 다소 가격이 저렴한 금남지하상가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이들 이주여성을 만나러 온 친정 식구들과 함께 금남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은 일상이 됐다.

특히 이들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광산

구에서 금남지하상가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편리한 점도 이들의 발길을 금남지하상가로 향하게 하고 있다.

금남지하상가의 매장들도 이주여성 쇼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옷과 화장품 등 중·저가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양말 한 켤레를 200원에 파는 등 일명 '땀처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주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금남지하상가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는 U매장 업주는 "이주 여성과 유학생들이 자주 찾아오고 고향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많은 양의 물건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근로자를 겨냥한 외국상품 전문매장도 늘고 있다. 평동산업단지 등지와 가까운 광산구 월곡시장에는 외국 상품만을 파는 전문매장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최근 100m 이내의 거리에 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인근에 환전소가 문을 여는 등 외국상품전문매장이 집적화되면서 외국인이 더욱 몰려드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광복기자 kroh@

청소년의 발칙한 상상

'2015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본행사가 3일 금남로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남로(옛 도청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상상페스티벌 본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광주 청

내일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車없는 거리' 금남로서 본행사

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든 참여형 시민축제, 청소년들이 직접 말하는 삶과 꿈, 광주의 미래를 들여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행사는 3일 오후 1~9시, 금남로 1~3가 차없는 거리에서 다채로운 거리 프로그램

을 선보인다. 행복을 찍는 사진관, 별난음식열전, 나도예술가 디자인공방, 버스커 쇼타임, 음식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한뫼마켓, 금남로 피크닉 등이 펼쳐진다. 한편,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에서 금남로 3가 금남근린공원 앞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시내버스는 해당 도로를 우회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배려하는 운전, 광주서 출발합니다"

광주지검, 교통문화 실천운동 전국 첫 선포

SOS·1000만명 릴레이·동영상 공모전 등

"배려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범인이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대형차가 소형차를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의 법을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 광주에서 시작된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해수)은 2일 오후 4시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과 함께 배려 범질서 실천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

롯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해수 광주지검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

광주지검은 광주·광주시교육청과 함께 SOS(시작해요, 오늘부터, 서로 배려)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 소형차 배려, 보복운전 근절, 양보운전 실천, 여성·초보운전자 배려, 어린이·노인 보호, 차로 변경 차량에게 양보, 긴급차량에 양보, 불법 끼어들기·꼬리물기 근절 등 10가지 실천

사항을 담았다.

광주지검은 배려 교통문화 차량스터카 부착,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 30초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전 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정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그맨 남희석씨와 영화배우 서우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1호로 'SOS 1000만명 릴레이'를 시작한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광주는 문화수도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배려하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실버 의료박람회

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노화에 따른 신체적 감각·능력의 변화를 체험하는 노인생애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문화전당 9월 20만여명 방문

지난 달 4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전당의 문화정보원, 문화장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한 관람객 숫자를 집계한 결과, 9월 한달 동안 20만 8391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4개월별로 관람인원을 별도 집계한 뒤 합산한 것으로, 문화전당 4개월을 둘러본 관람객이 월별로 중복집계돼 있을 수 있다.

4개월별 방문인원은 예술극장이 6만 3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린이문화원(6만2073명), 문화정보원(5만 5168명), 창조원(2만7642명) 순이었다. 공연 관람인원에서는 어린이문화원(3만455명)이 예술극장(1만805명)을 앞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어린이문화원, 문화장조원, 문화정보원, 아시아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5개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워크숍

전남도와 GS, 관련 기관 등이 1일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협력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중앙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한 전남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해 센터와 유관기관 간 지역 역할을 결집하고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정영준 전남 창조경제센터장의 센터운영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GS그룹의 전남센터 지원계획 발표, 분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임은 모두 5개로 총괄기획, 농수산벤처창업, 유통·판매, 웰빙관광, 바이오화학으로 나뉘었다.

농수산벤처창업 분임은 전남도, GS그룹의 전남센터 지원계획 발표, 분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임은 모두 5개로 총괄기획, 농수산벤처창업, 유통·판매, 웰빙관광, 바이오화학으로 나뉘었다. 농수산벤처창업 분임은 전남도, GS그룹, GS리테일, GS글로벌, GS칼텍스, 농수산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등이 참여해 기관별 농식품 창업, 6차 산업,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발표했다. 유통·판매 분임은 전남도의 유통·판매, 마케팅시책 소개에 이어 GS 그룹의 유

동방을 활용한 센터의 마케팅 지원 방안을, 웰빙관광 분임은 전남도의 웰빙관광 상품 개발과 마케팅 시책, 6차산업 상품화 등의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바이오화학 분임은 전남도, GS칼텍스, 전남테크노파크, 생물방역연구센터 등이 참여해 바이오화학 지원시책을 내놓고 센터와 연계해 여수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화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센터 전담기업인 GS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협력방안에 대해 앞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센터 전담기업인 GS그룹 간 센터 추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창조경제센터가 모범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平日	12,500원	8,500원
토,일,공휴일	14,500원	9,000원
		5,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속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치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